

이미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고대 학령' 때문에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일 어났습니다. 전교조와 고대들은 교육대학 에서 70석 이상 중등교사를 충당교사로 포함하는 '고대학령제'는 정부의 일관 성 없는 교육정책을, 단기간 고령화정책의 부당성 등을 지적합니다.



김씨종친회 회장 김세춘과 관련해 김중국 건설부장장을 만나보았습니다.

학령(學齡),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 라구요?
대학이 취업을 위한 편이 되어버린 요즘, 각 대학 고유의 학풍을 찾는 일은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눈을 뜨고 싶어한 학풍을 찾아보았 습니다.



이문·취업용 일대 홍수지해가 난 지 세 달,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위대 할 거리에 왜 대대기(?)
사회과학 사적이 판매되면 한 학기 문 을 받고 가져 다본 제본업인이 늘어나 는 데 왜 가리의 한계를 조정해보았 습니까.
위대의 물성을 삼년 세계역사전문점도 찾 아가 봤습니다.



개항80년에도 사상중점에 취임한 영화 '개기성' 감독을 만나보았습니다.

김씨 종친회 후임재단 참여 시사

현 재단 이사진에게 편지 보내 종친회 거취물어

김씨 종친회 현 재단 이사진에게 종친회의 거취를 묻는 질문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 게 밝혀졌다. 지난 12일(금) 김중국 건설부장 장(김씨종친회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 구성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 재단 이 사들에게 의사를 묻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고 밝혔다. 지난 11일(목) 열린 이사회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이번 편지는 '이숙경 전 재단 이 사장이 종친회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재단에 참 여, 학교를 후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고 밝힌 점, 이숙경 전 이사장이 변형은 이사에게 게 정이사체제와 관련하여 종친회가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보낸 점, 이숙경 전 이사장이 김씨종친회에게 현 이사진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을 앞서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배움터 총학 생회의 종친회 재단이사직을 반대하는 의견과 권위회의의 결의사항을 지적하면서도 '외대 구

상인 가운데 조용한 다수는 조규철 총장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 회는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종친회의 재단 참여에 동조하고 있음을 밝혀 종친회의 재단구 성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재단관련문제가 관공이사진의 노력에 의해서 거의 해결되었지만, 임시이사체 제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가 새로운 변 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밝히고 저의 는 확신하고 있다"며 종친회가 과연 어떤 역할 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사회의 올바른 판 단을 부탁하는 글로 편지는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목) 열린 이사회에서는 추 기경쟁에 산과 신원교수총원에 대한 논의를 진 행했을 뿐 재단 이사구성에 대한 논의는 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재직동문교수회도 운영위원 명 의로 재단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재직 동문교수회는 지난 12일(금) 교수회와 회의실

에서 44명 중 36명(위임장 포함)이 참여한 가 운데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외에의 정당한 발언을 위하여 현 임시편성 이사체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정이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구 성을 열의하기 위하여 교수, 학생, 직원으로서 구 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재단을 원치 않 는다고 결의했다.
재직동문교수회 수석총무 장영익(대일대)은 "이 구상은 '이 협의체에서는 특장(김중국 건 설부장)에 대한 입장에서 재단 이사진에게 의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 지만, 김중국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현했 지 않은 상태에서 재직동문교수회의 재단이 다 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미지수이다. 재직동문회 결의문에 대해 서울배움터 총학생 회장 이승주(사회, 정치외교 96)군은 "별로 환 영하지 않는다. 현재는 김씨 종친회에 대한 입 장표명이 중요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 다. 대학부

김중국 건설부장장 인터뷰

"재단구성 총장과 논의해... 사건일뿐"

각 구성원들이 후임 재단구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신결정재가 되고 있 는 김씨 종친회의 재단 참여에 대한 종친 회와 입장을 묻기 위해 김씨종친회 회장인 김중국 건설부장장을 만나보았다. 지난 12일 (금) 본보 108-1호 김의열에 진행된 인터뷰 에서 김중국 건설부장장은 '다수수의 구성원 들이 김씨 종친회의 재단 이사참여에 대해 지지한다. 이숙경 전 이사장의 재단대표 직책을 임명해 계획을 세우고, 이사진에 참 여한다던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 했다. 편지자

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사실인가
건설부장장으로서 후대 총장과 만나자. 총 장이 사에서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몇 사 람과 의견을 포함한 김씨 종친회에서 추천한 몇 사람 등으로 재단이 구성해야 한다'며 재단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던 서 나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을 묻는 적이 있 다. 그래서 "이사진과 상의해보는 것이 어떻 겠는가"하러 한 마디 했다.
그러나 재단 구성에 대해 총장과 나눌의 문 게 있다. 총장과 건설부장장이 개인적으로 의 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를 비롯해 각 구성원들이 김씨 종친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는가
(웃음) 김씨종친회를 구재단으로 끌어들이면, 구재단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럼 이전 에 재단이라는 한 사람들도 모두 구재단이라 고 지칭할 수 있는가 말이다.
육식을 가려야 한다. 본인은 위대의 이사가 된 적이 없다. 내가 할 때 배준근 전 이사의 재담기간중의 재단을 구재단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게 하면 동원운영회를 통해 발령받은 모 든 임직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학부

경희연립 재건축촉대 학교, 지분처리 고심

학교, 지분처리 고심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뒤편 경희연립이 재 건축됨에 따라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24평 할 8채에 대한 권리관계를 두고 학교당국이 고 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연립 재건 촉속회의 대표들은 수차례 학교를 방문해 학교 당국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 축회의 개성으로 양적용을 변경하에 예상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임을 우려했기 때문 이라고 학교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조 합해도 이득을 내는 "이러한 질문에도 답할 단 계가 아니다"며 "고가에 매입하던 모형을 그 동안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 사 실이 아니냐"고 되물어내기도 했다.
기속자가 없는 서울배움터 상황에도 고려된 단 것이 경희연립의 일괄매각을 통한 부지 마 려였으나, 현실적으로 학교당국이 이를 추진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재건촉대 학교당국이 동의하고 지분을 받는 것이다.
경희연립 재건축 조항이 추진되고 있는 재건 촉 계획은 2007년 66세대, 2008년 34세대 지하 1층, 지상 14층 단립 건물이다. 30일(화)부터
왕산제전 진행

서울, 교육부 항의방문... 용인, 1인 시위

왕산제전 오는 30일(화)부터 11월 8일(목) 까지 열을 간 열한다. 이번 제전은 왕산의 모 든 학교가 참여, 축구, 농구, 배구, 축구, 줄 타기 등이 열을 전개가 진행했다. 2대 총학생회 가 진행하는 마지막 대중행사는 이번 행사는 2 학기 왕산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단결된 힘 을 이끌어 내는 데 열의가 있다. "대중학생회장 황충호(문헌언어·94)는 "대중제전 왕산의 작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제전 에 반비, 학자자료들을 제작해, 행사기간을 통 해 재단문제를 전파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교육부 항의방문 모습

서재명 교수 총장확인 소송패소 확정

96년 2월 서 교수의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 송은 지난 9월 25일 대법원 전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96년 재단부정 이후 제소된 여러 소송이 당시 개인에게 내리 던 징계와 관련된 것에 반해 이번 서교수원은 현 관선이사, 총장의 직책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발단 은 96년 8월 24일 임시 이사회 당시 서재명 교 수에 대한 해임 결의 없이, 총장을 선임한 것 에 대해 서재명교수가 제소하면서였다. 이러한 문제는 96년 총장 선거 당시 조규철 총장이 1 순위로, 서재명 교수가 2순위로 이사회에 확정 된 날부터 제 당시 재단 문제가 벌어지면서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사회는 96년 4월 10일 열

린 이사회에서 서재명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 었다. 하지만, 재단부정이 밝혀진 당시의 이사 진이 교육부로부터 전일 취소명령을 받으면서 관선이사치가 파견되고 다시금 총장명령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관선이사장이 96년 8월 24일 취임 열린 이사회 당시 서 재명 교수가 학교발전의 상 등에 대한 소견을 듣고 조규철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재단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선이사진이 총장 선출을 다시 하겠다 경위와 절차가 적법하며, '진일 총장을 선출하고 동시에 신인총장의 선 출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기존 총장을 해임한다'는 결의가 내포되었다고 밝혔다. 대학부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개강한지도 얼마 안된 듯인데 추석을 쇠고 하니 어느덧 중간고사가 훌쩍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정에서는 여기저기서 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배운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야단치는 선생님에게 한 학생이 “어차피 잊어버리고 말 걸 뭐라하네 배워요!”라는 영악스런 대답을 했다는군요, 농담갑지만 배웠는 말입니다. 단지 한번의 시험을 위해, 사가 바친 자랑스런 성적표를 위해 공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두손 모아 기도해봅니다, “하느님, 저희를 시험을 위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족자주연론 오대학보

빈의 내가 만들어낸 두 죽음

▲모든 국민들은 추석을 뒤로하고 두 죽음을 목격했다. 하나는 일일교 하러던 조석록 동 포들이 분동항에서 집단적으로 사망한 것이며,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차 추첨에 거듭 실 패한 실형인이 임근각 자유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결한 것이다. 전자는 말미암 일산책에 의해 해안에서 시체가 유거된 참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에 애 도, 연민하는 마음 한 편에는 이와는 상반된 자신의 모습 이 깃들어 있음을 어느 누가 인식 하고 있었을까?

▲6·15공동선언 이후 민간차원의 교류가 붓물처럼 터지면서 재계민 이산가족 상봉은 이 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눈치를 볼게 하는 상봉의 장면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분단의 고통들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보다는 너무도 쉬이 정당에서는 정 생의 도구로, 언론에서는 색연문 시비로 온 나라를 분열화하여온 급급했다. 문헌에서도, 화 계에서도,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외에도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고 사방에는 실형 만민단 늘어났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한국적십자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상봉신청자가 모두 11만 7311명이었다. 이번 4차 이산가족 상봉에 맞춰 이들의 생사여부 를 확인해 보니 1만 2천명이 유신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엽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리아 드 림을 안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일하게 되었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보장, 산재 등 법 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꺼려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조석록 동포들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석록 동포들은 불법체류자를 포 함해 한 여명이 이른다고 한다. 제7 대창호 냉동창고에서 죽어간 동포들의 모습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석록 동포의 삶과 밀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동포나 민족임을 숨긴다간 강요하는 나라에서 중국의 동포들은 재미교포, 재일교포와는 달리 자국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조건이 좋으나, 나쁘게 따라 동포들의 삶 마저도 절망되는 것이다.

▲두 죽음에 대해 혀를 끌끌차며 인원을, 분단을 언급한 사람들은 다른 아닌 우리였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만들어낸 정부인들도 우리였음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아닐까?

편지정

이 사람 독도 수호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독도의 내 진지회 개최한 용인배움터 독도문제연구회 회장 박규현(정보산업공 산업공학 1) 군을 만나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12일(금), 용인배움터 동아리 독도연구회는 후북관 앞마당에서 '독도의 내리는 주먹' 가을 전시회를 시작했다. 푸른 바다를 아우르고 있는 아름다운 독도의 사진이 여러 장 전시되었고 독도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독도는 곧 '나'입니다"라는 한 동아리 회원의 말이 인상적이다.

"전시회를 가진 특별한 계기요" 글썽하고 당혹해 해야 하는 일 아닌가? 독도연구회 회장 박규현(정보산업공·산업공학 00)군은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를 묻자 북서독도현상도 어떻게 되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니다. 하지만 왜 독도가 우리 땅이며 우리는 정말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라며 그는 주인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독도를 남의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과연 '독도' 내리는 주먹을 학생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붙여진 대자보들이 '한, 일 어업협정의 파파로 우리 어민들의 조업량이 줄어들면 우리는 어류산품을 많이 못 먹게 되고 따라서 식단이 바뀐다' 등의 흥미 있는 소재를 만화 등의 형식으로 잘 이용하는 것을 보고 글이 높았다. 그가 속해 있는 독도연구회는 얼마 전 지난 99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제합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김군은 "현재 우리 어민들의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니 사실상 우리 어민들의 조업권이 절반으로 줄어있어요. 지금 공동관리구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역은 명백히 우리 땅입니다"라며 지금까지 약 5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독도연구회는 198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6번의 출몰, 총 4번의 독도 탐사를 하였으며 해·외에서 많은 관련 전시회를 가졌다. 현재 18명의 회원이 꾸려지고 있는 이 동아리의 올해 활동에 대해 묻자 그는 "동아리 자체적으로 갖거나 모임을 많이 가졌지만 사실 1학기 때는 대외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2학기 들어 대외적으로 관련 활동을 신문을 발행한 정도였죠"라며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외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자 "독도와 나 라는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수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단순한 개인차원의 이해관계가 달린 일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전파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선조들의 독도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땅' 독도가 존재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열심히 지켜나가야겠고 이것이 바로 역사가 아닐까요?"라며 반문하는 김군의 눈빛에는 강한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

교대협 10일 동맹휴업, 상경투쟁 돌입

교대협제체 철폐, 중장기 대책 수립 요구



대형 10일부터 동맹휴업을 계획함에 따라 진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확정하고 2003년부터 교육대학에서 70명까지 이수를

한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충원하는 '교대협정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4천여명이 초등교사로 임명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교대협의 중장기 수립안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학급 당 학생수의

한 감소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35명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역시 2006년부터는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대협(위원장 김구현,전국교대 총학생회장)은 중장기 수립계획에 대해 교원을 확보하면 교사부족 현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 교대협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속성 학점 이수안으로 초등교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초등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불과 2-3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초등교사 수업정책 실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중장기적 교사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수급대책위원회 설치 ▲2003년도 학급당 학생 수 확장에 적극적 제재추기 수급 계획이 아닌 교원수급을 고려한 연차제 학생 수 충족을 골자로 한 단계적 수급안을 제시하였다.

전대거전 공동기자단

26일(금) 용인배움터 가을농활 떠나

서울, 순창군 마지막 농활 진행

용인배움터 가을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이 오는 28일(금)부터 28일(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다.

26일(금) 오후 2시경 학생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공동산인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기치로 열리는 이번 농활은 '남미'보다는 '농민과 연대'를 위해 장소가 매달리면서 이천으로 변경했다.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연 94)군은 "학생회가 농활과 재단문제에 함께 추진하러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농활을 통해 마음을 추수의 보람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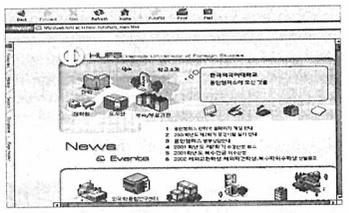
용인배움터농활 관련문자는 각단체, 과학생회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배움터는 지난 5일(금)부터 7일(일)까지 순창군 곳곳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농활을 진행했다. 농활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각 마을별로 비베기와 분말화 등을 했다.

순창군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농활은 가을수확의 보람과 유종의 미를 동시에 거두는 기회가 됐다.

용인배움터 자체 홈페이지 개설

용인배움터 전산실은 배움터만의 특성을 반영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목) 개설된 홈페이지는 기존 홈페이지와 운영되는 홈페이지에서 용인배움터 부속기관,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각 특성에 맞는 아이콘에 링크시켜 놓았다. 전산실은 △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한 용인배움터의 특화된 발전 전략 △지역 친화적인 아름다운 캠퍼스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용인배움터 구성원들의 커뮤니



티 기능 확대 △이공계열 학과의 연구 및 실습 인프라 구축을 개발 방침으로 밝히고 있다. ©2003년

양 배움터 취업특강, 회사설명회 개최

용인배움터 취업특강이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15일(일) 오후 2시에 (주)리도 교육 연구원 부원장 김조경 강사가 '취업면접 예절특강-Image making'을 주제로, 16일(화) 오후 2시에 (주)엘리트 코리어 정주미사 남경현 강사가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한, 서울배움터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10일 취업특강 및 회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6일(화)와 18일(목) 늦은 3시 대학일 411

호에서는 열차활동, 에이이치(AIC)생명이 각각 회사설명회를 열고, 17일(수) 오전 10시부터 늦은 5시까지 교수회관 1층 채용상담실에서는 기아·현대 자동차의 대졸신입사원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17일(수) 늦은 2시 대강당에서는 모의면접을, 30일(화) 늦은 3시 대학일 411호에서는 이로트 상사 이영숙 부장이 어학성 특강을 개최한다.

용인, 모교방문의 날 잇따라 열려

사학과 '사학인의 밤'이 지난 13일(토) 동문회와 재학생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장소는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 명동 세종호텔로 정해졌다. 학생회장 한욱민(96)군은 "졸업한 선배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어려웠다"며 "혼자하기 힘든 것을 함께 풀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화학과 모교방문의 날이 지난 13일(토) 자재대 전대미당에서 열렸다. '동문과의 유대다지기, 화학과 발전도'를 위해 열린 이 행사는 모두 8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회장 황중환(96)군은 "동문 선배와 연관이 잘 안되어 힘들었다"며 "졸업한 선배들과 만나 과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언어학과 '언어인의 밤'이 지난 13일(토)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문대 마당과 공대 207호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학생들이 교수와 교내교외, 문헌, 약기전주, 영상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지훈(00)군은 "언어인의 밤은 1년에 한번 졸업한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함께 준비하라는 기회로 고생한 친구들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배움터

| 구분 | 이름 | 점심A | 점심B | 점심C | 저녁 | 면 |
|----|--------|---------|---------|---------|---------|---------|
| 월 | 대학복합대학 | 김지현(15) | 소고(15) | 송두희(15) | 유재용(15) | 박정민(15) |
| 화 | 오강(15) | 신재민(15) | 케이(15) | 대규(15) | 성광(15) | 우동(15) |
| 수 | 복고(15) | 김재민(15) | 지연(15) | 이경(15) | 재민(15) | 진석(15) |
| 목 | 사물(15) | 광보(15) | 카이(15) | 홍남(15) | 아재(15) | 정민(15) |
| 금 | 오대(15) | 우동(15) | 김지현(15) | 송두희(15) | 유재용(15) | 박정민(15) |

용인배움터

| 구분 | 이름 | 점심 | 저녁 | 면 |
|----|--------|---------|---------|---------|
| 월 | 소고(15) | 송두희(15) | 유재용(15) | 박정민(15) |
| 화 | 오강(15) | 신재민(15) | 대규(15) | 성광(15) |
| 수 | 복고(15) | 김재민(15) | 지연(15) | 이경(15) |
| 목 | 사물(15) | 광보(15) | 카이(15) | 홍남(15) |
| 금 | 오대(15) | 우동(15) | 김지현(15) | 송두희(15) |

스칸정중, 흠겨머디는 논의 활발

스칸디나비아어 정기총회 및 북학생 환영회 지난 11일(토)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학과장 김성철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과 시범보고와 결산 △2학기 총학생회 기획안 △예산안 △민주정학급 △재단구성논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특히 지난 9월 내규를 확정된 장학금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 운영위원회는 이번 주 학과장실 조교와 함께 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교환학생, 연세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학생들이 참가해 농활을 즐겼다. 한편, 조교 김지훈(00)은 "우"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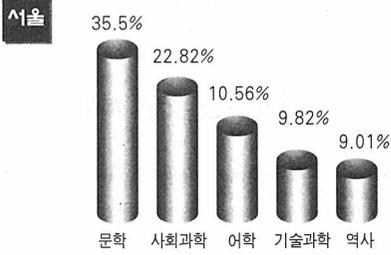
과 홈페이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 할 수 있다

이후 공의었다. 다른 비준 있는 의견들이 소수 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환영기간동안 졸업앨범 추가 촬영 및 재촬영 의무들은 졸업관리위원회

회사무실(학생동325호)로 오셔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실상 부재중입니다 4번 꼭 연락주세요 *문의처가 바뀐다. (011-333-4545 4번)

▲ 양배움터 도서관 도서대출순위
(1월부터 5월까지자료)



▶ 자료출처: 도서관 열람과

기회 - 외대의 '화풍'을 찾는다

도서관, 읽기쉬운 소설류 강세

학풍(學風)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의 경향이나 태도. 한 학파의 기풍이나 분위기'를 뜻한다. 즉, 해당 학파의 학술적 경향을 통해 심어진 고유한 분위기가 바로 '학풍'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하지만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풍이라 부를 수 있는 확실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대학의 본연적 역할인 학술·연구활동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자주적 탐구인·국제적 한국인·특정적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적을 실패하고 있는 우리 학교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내 도서, 연구학적, 각종 학술 활동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외대 내 학풍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도서관은 단지 개인적 기호 이상의 것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대출 순위나 보유장서의 일정한 양상이 그 대학의 일반인적 학풍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 우리학교 도서관을 순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울, 용인 모두 문학이 각각 62.650%(35.50%), 24.568%(32.13%)으로 가장 많은 대출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읽기 쉬운 소설류가 강세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외국·토크 공부를 하고 시험기간이 아닌 경우 대개 소설책을 빌려 본다"는 이연희(서양·영어 97장)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과학 분야는 서울, 용인 각각 22.82%, 14.89%의 점유율로 대출순위 2위였는데 점유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배움터 개설학과와 특성 이 드러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3순위가 서울배움터는 어학(10.56%) 용인배움터는 기술과학(13.03%)인데서도 드러난다. 연령권 총대출 책수는 서울이 176,484권, 용인이 76,511권으로 1년 평균 서울배움터 학생들(대학원생 포함 숫자) 20만을, 용인학생들은 11만을 읽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주안점이 밝혀내는 대부분의 용인배움터 학생이 서울배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수치다.

장서는 서울이 51만 6천여권, 용인이 32만 5천여권으로 양 배움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장서 중 어학·논문을 살펴보면 서울·용인 배움터 모두 사회과학분야가 7,387권(38.01%), 6,129권(41.81%)로 가장 많았고 의외로 기술과

학분야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출판부
각 대학 출판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학술에 필요한 자료개발, 연구용 출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반 출판사에서 '돈이 되지 않음' 학술서를 학교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출판부가 생긴 큰 이유 중 하나다. 근 10여년 전까지는 우리학교 출판부에서는 교재 정도만을 편찬했다.

이후 발간이 확대돼 지금은 문학·역사·종교 등 출판물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들은 편찬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편찬된 도서는 총 198종. 이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도서(절판된 도서 제외)는 174종에 이른다. 이는 분야별로 따져보면 어학이 80종으로 가장 많고 사회과학 24종 문학 23종 사정 15종 순이다. 이 중 사정 분야는 영·불·독어과를 제외하면 우리학교 출판부가 강세를 띠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 특성화된 도서를 출간하는데 부족함이 없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부의 김 모 교수는 "비영리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획·영업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반 출판사들의 경쟁을 감안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획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전국대학 외국어 소선통사를 발간한 부분 등을 들 수 있다.

- 읽는 순서
1. 도서관·출판부 현황 점검
 2. 학내 각종 연구소 현황과 지원정책
 3. 학부·대학원 내 학술활동 점검

도서관

흔히 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담론을 생성해내는 지적 욕구 충족한 곳'이라는 의미부여가 아님도 대학 도서관에 대한 본연적인 의미 규정일 것이다. 때문에 이 곳에서 보관·대출되

보도 - 신문방송학과 학술제

진지함 간직한 여섯색깔 학술제

대학내에서의 가을은 학술제의 계절이다. 각 단과대나 과 소속 학회 혹은 학생 동아리들의 연례의 성과를 올곧게 평가받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인 것이다. 하지만 단과대 차원도 아닌 일개 과에서 6개의 학회, 60~70여명이 준비하는 학술제는 그런 흔치 않다. 그만큼의 역사성과 기량의 축적을 반증하는 신문방송학과 학술제가 지난 8일(월)부터 오늘 15일(일)까지 열리고 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방송화학회 영상제의 이번 주제는 '시선' 다큐팀과 드라마팀으로 나눠진 화학회들의 '시선'은 각각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와 그들 스스로의 학회 생활에 머물렀다.

이동권에 대한 문제와 그들 스스로의 학회 생활에 머물렀다.

우선 다큐팀의 영상물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위해 상반기 내내 투쟁했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의 활동 내용을 담았다. 비장애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버스를 탈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위험한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의 개선을 위해 구석구석 봉사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투쟁의 모습을 전한 속의 날카로운 통찰로 담았다. 그간 논의와 온 언론개혁의 한계와 대안을 중심으로 다스림 인터넷신문, 언론보조운동 등을 짚어 본 편집부의 발표는 다소 진부한 수 있는 주제를 생동감있게 펼쳐냈다. 언론비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정의를 내리면서 출발, 지금까지 언론개혁운동의 역사와 대안을 논하고 정책기행발표, 세부조사까지 언론개혁비에서 논의된 모든 틀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11일(목)에는 한국사회연구원의 보수정권 관련 발표가, 12일(금)에는 노래매 세 날 공연이 열렸다.

학술부

학술단식

18, 19일(금), '21세기 아랍어와 아랍문학의 전망' 토론회 개최

한국 아랍어·아랍문학회는 오는 18,19일(금) 양일간 교수회와 대학의십과 세미나실에서 1차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21세기 아랍어와 아랍문학의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8일 개최시, 19일 학술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국 아랍어·아랍문학회는 현재 최정인 우리학교 승정수(아랍어)교수를 중심으로 조선대, 명지대 아랍 관련학과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행사는 18일(목)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19일(금)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다.

문화콘텐츠 제작의 역사와 방법론 - 제작사레콘 국제 학술회의

학문과 실용기술의 결합으로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지난 12일(금) 서울배움터 국제대 애경홀에서는 역사문화연구 등 학내 5개 연구소 주최로 '문화콘텐츠 제작의 역사와 방법론 - 제작사레콘' 발표회가 열렸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 행사는 미래의

기' (독일) '실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등 유럽의 문화 영상을 상징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일일(철학)교수와 사회로 러시아·독일의 문화 콘텐츠 제작의 역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 시기에는 교육용 교재를 중심으로 독일·러시아의 영상을 제작 방법론과 변천사를 살펴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제작의 실체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외국문화연구소, '성경과 코란' 관련 발표회 열

지난 10일(수) 교수회와 2층 강연실에서 외국문화연구소의 스물 한 번째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최근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부쩍 높아진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 이번 발표회의 주제는 '성경과 코란'으로 선정됐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코란 속에 나타난 여성의 배역과 그 현대적 의미' 원순갑 차별과 금기의 구조연구'에 대한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토론회로는 조희선(영미지역학과), 문은영(이탈리아), 최창모(건축학 히브리학과), 리영준(독일어과)교수가 참여했다.

탄저병보다 무서운 것

0... 현재 탄저병 테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의 보건자가 생기는 등 미국, 영국 전역이 '탄저병'으로 공포를 치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우편 물테러를 대비해 우편물 단속이 심해졌다.

이는 이 탄저병 테러가 주로 우편물을 탄저병균이 담겨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우편물책임들이 방북문을 쓰고 일렬로 나란히 서 우편물들을 검사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우편물 우회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생화학 부가 중 가장 무서운 균인 탄저균보다도 급격한 전파로 크로니콜자 이를 확인 하니 김씨 종진회에서 이사진에게 보낸 편지지더라.

내용을 요약하면 '현 관선이사장이 김씨종진회의 거취에 대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교열, 양 배움터 총학생회, 대학원 학생회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종진회를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말한다.

이와 함께 종진회 위원 재직등문 교수회, 노조등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학술부

0...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 명단 공개 이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청소년 성매매 범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이고, 명단 공개 이후 급격한 감소를 예상했던 청소년 보호위원회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어 2차 명단 공개를 계획중이다. 2차 명단 공개로 더 확실한 '정리'를 주는 것이 성매매 예방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에 우리 크로니콜자, '명단 공개보다 더 급한 건 성매매 원인 규명과 예방'이라는 것을 그대, 청소년보호위원회만 모르고 있군'

그들만 모른다

비둘기철판

일시: 10월 15일 5시 30분
장소: 대강당
(인도어과 민과제 날개)

· 1학기를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새내기(?)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세요 산악부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죠

문의: 학관 4층 산악부 (961-4542) (산악부)

· 혁신 독일어과 99회반 이창기 선배가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 학내서 군생활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어과 및 친 이학번 후배가)

의 정취와 아취를 느끼시고 재학생들과 담소도 나누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11월 4일(월) 12시부터 늦은 4시까지
장소: 용인배움터 명사관 잔디밭
내용: (KOMADA)공연, 식사, 재학생들과의 만남, 기념사진촬영, 다과 (일본어과)

· 동아리 여러분, 19대 동아리 연합회를 함께 이끌어갈 부를 모집합니다. 동아리를 사랑하고 열정있는 누구나 들면 실로 찾아주세요. 330-4156, 019-393-8017로 연락주세요. www.net.동아리연합회.cafe로 들어주세요. (19대 동아리연합회)

· 내 삶은 끝났습니다. 저녁 7시의 영동대교 위 광주시 내의 11172인의 나는 함께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당신과 세상과의 괴투부, 사활문학 그리 오래 걸리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666 팩스: 961-8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330-4112, 4580

이문 별

- 동아리연합회 회차 36조에 의거하여 동아리 고전어 연구반에 정계 경교 1회를 내립니다
사유: 2001학년도 1학기 정동태의 2회 무단 불참 징계: 해당학기 기본급 박탈 (동아리연합회)
- 일본어과 40주년 기념행사 중 노래 한마당에 참가할 일본어과 학우를 찾습니다
꼭은 자유복으로 합니다
일시: 10월 19일까지
문의: 일본어과 00강준모 (011-9888-8193) (일본어과)
- 인도어과 민중가요 노래매 날개의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왕산 곶

· 제 1회 한일교류의 가든가피
용인배움터 일본어과에서 한일교류 관계자님들과 여러 선생님, 일본인 유학생들 모시고 제1회 한일교류의 가든가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가을

마알입니다

- 완산에서 핸드폰(Plus)통화, 문자) 습득하신 분!!! 꼭 존 연락 주세요 bluegrove@dreamwiz.com (031)733-300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잃어버린 이)

언어문화생활

분석 · 외대거리

세계문화의 집합소 외대거리를 꿈꾸며!

연세부터가 외대 앞에는 여기저기 알뜰한 간점이 등장하고 고급스런 실내장식을 갖춘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도 이제 노점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먹기 보다 롯데리아에서 팔랑미 버거를 먹고 로즈버드에서 카페오레를 주문하고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인기 요즘 외대 곳곳에서 대형책점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점들을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외대의 정문을 중심으로 지하철역까지 위치한 상점들을 훑어보면 20개의 음식점 중 7곳이 거대 패스트푸드점이며 요 일년 사이에 외국 커피점문점도 3군데나 생겨났다. 이와 반면 길거리 곳곳에 자리했던 노점은 현재 단 6곳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을 운영 하시는 한 할머니는 "요즘학생들이 케이크하고 편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나라도 이런 노점은 찾지 않겠다."며 현혹을 쉬었다.

현재 대학가의 지나친 소비문화는 우리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음식점과 술집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만나보기 · '최고수내 친해방' 주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몇 안되는 서점이나 헌 책방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이다. 그 예로 외대 앞 얼마되지 않은 헌 책방 하나인 지하철역 근처 '최고수내 친해방' 등 문물 달을 예 정이다. 그리고 타 대학의 예지만 고대앞 사회 과학 책방인 정맥서점이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 앞의 풍경의 변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일 수 있다. 많은 수요가 보장되는 학교 앞 상권은 상인들에게는 좋은 장소이기 분명하고 다른 대학가의 모습도 발만 닦지 않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할 것 있다. 외대앞 거리는 분명 대학가이며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장소이다. 그런 장소에 분명 필요한 건 학생들의 지적공간이다. 소위 고등교육의 장이라 불리는 대학가의 주축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분명 우리학교는 외국어라는 특성을 가진 대학인데 이를 잘 살리지 못하는 점이다.

외대 앞에 오면 세계곳곳의 음식, 술, 역사, 문화 등을 느낄 공간이 많이 있을 법도 하는데



실상은 그리하지 못했다. 흉내의 '피카소거리'가 예술을 중요시하는 학교분위기에 편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특화된 대학가 명소가 된 것만 예는 부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특성화된 대학이라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대학에 세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김정훈 기자 bpress@korea.com

생활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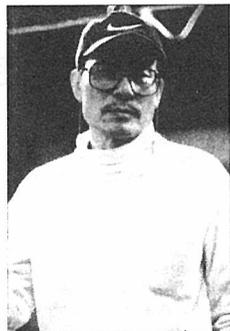
노음이 지듯, 젊음이 지고 있다

노음이 지고 있다. 신속에 포근히 자리잡고 있는 용인배움터의 환경이 아름답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동의 할 것이다. 혹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노을지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노음이 지는 빛으로 볼스레 물들어 가는 배움터를 볼때면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생들에 대한 단상이 떠오른다.

"대학생 때가 아니면 언제 낭만을 느낄 수 있었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들 무언가에 젖어 사는지..." 10년 동안 외대 앞에서 '최고수 친해방'을 운영하고 이제 문물 달을 찾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김정훈 기자 bpress@korea.com

"오늘은 책 두권 팔았어"



마사다(23)

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은데도 10년 전에는 우리 가게 장사도 관습적이었어. 주로 '바르쿠스 사상' 등과 같은 이색서적이 많이 나왔어. 교과대, 경매대 학생들까지 책을 사러 오잖아.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외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영어와 학생이 '테스'가 읽지 '토머스 하디'가 누군지 모르더라고.

그 동안 친해방을 운영하면서 외대 학생은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런지 단어나 문법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인생에서 그나마 낭만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대학생 시절인데 낭만이란 것은 좀처럼 느낄 수 없어서 안타까워. 책도 낭만을 느끼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통 책을 찾지 않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매달리고 졸업 후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낭만을 느낄 수는 없는데. 정말 안타까워. 외대 안에든 온통 콘크리트 건물이잖아.

앞으로 책방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늦은 10시 반경) 책 두 권 팔았어. 요사이에는 한달 가세 내기도 어려워. 학생들이 책을 거의 안 봐. 이 책들이 얼추 정리되면 문 달을 생각하야.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맥주 짚고 세계로

외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제일의 화교가 있는 것처럼 세계맥주전문점인 'Who's Who'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곳에 들어가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세계 여러 나라의 맥주들. 처음 보는 맥주부터 눈에 띄는 것까지 다양한 맥주의 종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게 종업원에 물어 보니 모두 17개국의 100여 개의 맥주가 있다고 한다. 내부 장식과 분위기가 외대 앞의 다른 술집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나무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는 이 술집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했고 이 곳에서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고 술을 즐기는 분위기가 주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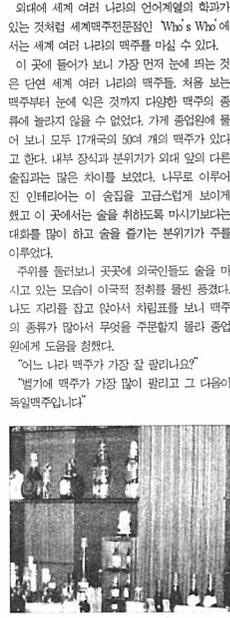
주위를 둘러보니 곳곳에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이국적 정취를 풍긴다. 나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차림표를 보니 맥주의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주문할지 둘러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느 나라 맥주가 가장 잘 팔리나요?"
"벨기에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 다음이 독일맥주입니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보도 · 세계맥주전문점 'Who's who'

맥주 짚고 세계로



보도 · 세계맥주전문점 'Who's who'

그는 나에게 벨기에 맥주를 권유하였다. 맥주를 마시면서 그 종업원과 여러 사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외대에는 여러 나라의 관련된 화교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화교의 맥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학생들은 일본 맥주에, 독일어와 학생들은 독일 맥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손님들의 연령층은 참으로 다양해서 10학년부터 고수년까지 여가를 자주 찾는다고 한다. 들이 올 때 외국인들도 눈에 띄어 그들도 많이 오나라 물어보니 그는 외국인들도 가끔 온다면서 젊은 외국인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했다.

외대 주변에는 무분별하게 치러진 술집, 음식점이 대다수인데 비해, 이 곳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루어진 외대처럼 여러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앞으로 여러 나라의 종취를 즐겨 마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길 것 기대해 본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반점

반점의 언어를 찾아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주의를 미스아(미피해) 한다. 정성욱 신수는 미스아 세계 신기록을 마스(캐트)기 위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행정학과 방언으로 '부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말은 남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조선 말대사관은 '마스다'의 의미를 '강렬정 한 대상을 부수거나 깨뜨리다. 2)남은 재도, 사상관청 생활양식, 사업장 등 을 일깨우다. 3)새책이나 기록이나 기록을 깨뜨리고 돌리다' 등으로 풀이 하고 있다.

언제부터 친해방을 운영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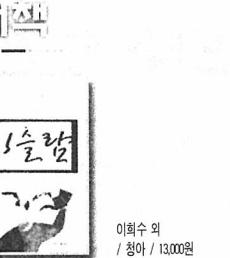
가게 앞 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중대에서 교수를 지냈어. 10년 전에 정년퇴직하고 여태껏 이 친해방을 운영해 왔지.

처음 책방을 시작할 당시의 지금의 외대 학생

처음 책방을 시작할 당시의 지금의 외대 학생

평단응화문

이슬람



이희수 / 창 / 13,000원

이 책은 이슬람 문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책이다. 총 13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이슬람에 관한 간단한 소개, 이라크-이스라엘 분쟁의 실체, 석유 문제, 여성 문제, 중동의 주요 정치 지도자, 일 상생활과 풍습, 문화와 예술, 소수민족 분쟁, 한국과 이슬람의 교대 문화교류, 이슬람의 역할과 세계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알기 쉬운 사례를 많이 인용하였다. 이 중, 중동문명을 다른 9명이 주목할 만하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을 소개하면서, 왜 그들의 일부가 이반적인 테러리스트가 됐는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논리가 오늘날 이슬람 사회를 어떻게 유린 해 왔는지 그 원상을 밝혀주고 있다.

나는 내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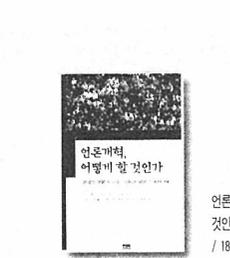


패트릭 앨런 / 권역단 / 우물이 있는 집 / 11,000원

한국 지사인 100여이 책은 유일한 한국 지사판 조 파는, 1950년 프랑스 식민지 마르타니크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난 그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을 연구한 사회철학자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실존주의자였고, 장 폴 사르트르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였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프랑크 국적을 버리고 알제리 독립투쟁에 헌신한 혁명가였으며, 전 아프리카의 연 한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흑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의 불꽃같은 삶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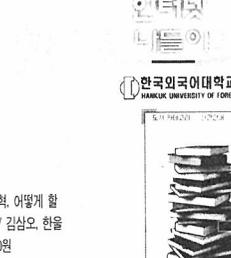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김삼오 / 18,000원

인원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뜨겁다. 제각각 안타 조심 운동, 언론개혁 운동에 대한 역사서 등이 쏟아 지고 있지만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는 책들은 흔치 않다. 이에 코리아 타임즈 코 리어 헤럴드 경제부 부장 등 현직 언론인 생활을 경험 으며 현재 한호지역문제연구소장을 지내고 있는 김삼 오 박사가 지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단연 눈여 띄는 저서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언론의 발전적 역할, 한 언론 보도상태의 문제점, 언론 과 정치 등에 실력있게 다가가고 있다.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김삼오 / 18,000원

1983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138종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174종의 유 동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의 흥취이기도 하다. 한국외대출판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 의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하여왔다. 그리고하여 학문의 국화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주로 외대의 특성답게 어학관련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이 흥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발간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타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보기 힘든 도서 소령물을 운영 하는 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공평한 사고(생각)와 무한한 지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http://www.hufs.ac.kr/~press

만나보기 · 사진경연 논란에 오른 다큐멘터리 영화 '해기섬' 감독

“사상검열은 창작자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월간조선 10월호는 여론반란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해기섬' 제작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을 '국군 지원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해기섬'을 제작한 영화 모사화단 사상검열을 가하였다. 이 영화의 감독 경형필의 이야기를 들 어보았다.

죽은 지 52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위령제 한 번도 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그것도 어렵게 한번 한 정도이다.

월간조선 10월 호에 아끼던 일련의 사연에 대해 서 감독님과 월간조선 기자와의 조우가 있던 걸 로 하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8월말 월간조선 우정창 기자에게서 연락 이 왔고, 9월초 안수리에서 후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찾아왔었다. 기획을 같이 한 연구소의 소장님의 소개로 와서 별 부담 없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직 성의도 없는 영화를 놓고 사상 논쟁을 제기한 월간조선에 대한 생각은

현재 제작중인 지방의 영화를 가지고 사상은 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단, 한 프레임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해할 수 는 없는데 실제로는 가짜임을 가지고 기 사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작화에 대해 사상은 평을 하겠다는 것은 가짜 이면들이었다는 작품은 뒷전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 할 수 없다. 언론을 무너뜨린 자유에 큰 재앙을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사상 검열의 보도가 창작에 미치는 영 향은

언론을 통한 사상검열에 대해 정말 무서움을 느낀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좌 익감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본다. 장에는 몰랐는데 언론의 중심에 있는 부 담감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기사는 법률적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의 이미지를 왜곡시킬 뿐더러 유리한 법률적 관점 이 나온다 해도 나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는 지 워지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오보로 발생하는 사상검열은 창작자에게는 죽음과도 같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색깔론자는 구제되지 않는다.

신문 지상에서 보니 여수에서 제작 지원비 지 급부류 결정은 내렸다고 들었다. 지금 어떤 상황 인가

여수신문의 이야기는 시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이다. 1년 6개월 동안 이 작품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여수에서 제작비의 30% 정도의 보 조금 신청을 하여 여수시가 지급을 허가해 줬 던 문제인데... 기사 한 줄로 지급을 보류한다 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월간조선의 보도 이후 영화제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정신적 부담이 너무 크다. 다른 것은 아닌 색 갈시비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한 및 이를 만 빌리는 후회도 어렵다. 아무 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창작 계획은

지금으로는 아무런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개 봉도 하지 않은 영화가 사상검열의 도마에 오 르다 보니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권정우 기자



보도 - 언론 풍자 마당극 '신문고를 울려라'

참언론을 향한 복소리

과거 억압받고 힘없는 평민들이 마당놀이를 통해 부패한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했다면, 우리 는 마당극을 통해 살아야며 겪는 부조리한 세 상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한다. 이런 마당극은 관객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사건과 내용이 주를 이루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비현실 세 상을 숭고함보다는 추함과 비속으로, 서민적 비 애를 웃음과 해학을 통해 표현한다. 별다른 부 대 장비 없는 땅 바다에서 관객들의 흥을 돋구 는 풍물패와 농성소리만 배우들이 관객들에 들 러 쌓여 갔다. 호응하는 진행되는 전통적 형식 의 마당극 특징이다.

지난 9월(토) 정충체육관에서 신문개혁 시 민연대와 전국연대 노동조합 주최로 경남 진주 의 큰문 문화 센터가 꾸미는 마당극 '신문고를 울려라' 가 공연되었다.

추적적 가늠자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둔된 밴드와 감산의 축하 공연으로 뜨겁게 시작된 이번 마당극에는 무대 옆에 위치한 큰 신문고가 의미하듯 부패한 언론의 모습을 풍자 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에 기부하며 부귀를 누 려던 고위층과 보수 언론, 일본이 패망한 뒤 가 면을 비워 쓰고 다시 마당에 기생하며 살아가 는 그들을 풍자하며 시작하는 이번 마당극은 6·25에 남편과 헤어진 뒤 갈망하던 노동자 아 들을 둔 한 할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 진행 된다.

기사의 길 보다 짧은 광고를 위해 전기방송,

자전적, 감자냉고 등들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 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극한한 가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반대하며 허를 찌는 언론들 신나는 월드컵 음악에 맞춰, 살기 위 해 싸우는 노동자의 모습을 외면 한 채 축구 취재 에만 열을 올리는 기자들, 어느 기자의 '해리이 다졌다'는 말에 LA 다저스의 박찬호를 취재하 라 우르르 달려가는 기자들을 묘사하는 장면, 언제나 온갖 미사여구 사용에 집권자에게 아무 해도 살아가는 언론사의 모습 등을 생생하고 코믹하게 풍자했다. 처음 이 모든 예곡연들을 믿고 살아오던 할머니가 아들 통해 마침내 언론의 실체를 느끼게 되고 결국 신문고를 울 러 잘못된 언론을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관련 언론사에서 일하는 김도성(35)씨는 이번 마당극을 보고 "현재 조금씩 나아지고 있 지만 아직도 언론의 왜곡 보도가 심하다. 기자 의 기자정신이 요구되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고 전했다. 나병림(45, 주부)씨는 "주부들이 말 로는 이런 사실들을 자주 듣지만 사실 흡수 스 게게 되는 자리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흥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좀더 이런 사실을 풍자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졌으면 한다."고 마당극을 본 소감을 밝혔다.

이번 마당극은 시작 무거워질 수 있는 언론 문제를 배우들의 능숙한 연기로 풍자와 해학 을 섞어 공연 관객들을 극에 몰아넣고 호응 을 유도하는 관객과 하나되는 공연을 펼쳤다.

김정원 기자 bpress@hanmail.net

서민

공안

2001 서울공연예술제

2001 서울공연예술제가 지난 4일(목)부터 는 11월 17일(토)까지 대학로 중심으로 국립 극장, 세종문화회관, 문예회관 30개 공연 장에서 110여 이상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예술제는 공연예술의 대표적 행사인 '서 울극단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하여 일구어 낸 첫 번째 행사이다. 지금까지 공연연말자는 대부분 30여 개의 젊은 관객이었다면 이번 공연 예술제 기간에는 그동안 공연에 무관심했던 4, 5대 이상의 중·장년층도 대학로에 몰려들 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연극의 즐길 수 있는 카탈로그를 비롯하여 기존의 공연예술을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 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패키지 티켓도 준 비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spa21.com
문의 : 3679-2501-3



여수신문을 주제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감독은 무엇인가

한편의 영화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 다. 단지 미술의 역사인 여수사건을 대중적인 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만들게 된 거다. 수평적인 민간인이 확산된 사건인데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고,

보도 - 잉베메터 방송국 행사

서울 - 21회 외대가요제 · 용인 - 20주년 기념 행사 열려

1981년 9월1일 설립된 용인메우터 교 육방송국(이하 FBS)이 올해로 개국 20주 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간 오디오와 TV채로 의와와 함께 한 FBS는 지난 8일(월) 후성북 지관 4층 소극장에서 열린 '트랜스 센터 바로 앞'기 행사를 시작으로 개국 기념행사를 시작 했다. 한국 트랜스 센터 1호인 박보경씨를 강연 자를 초청하여 흥 여의생희장등 여러 캐넌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중 회는 박보경 씨에게 두 번째 기념패를 수여했다.

첫 번째 기념패는 9월(토) 예행연인 '가 을 음악회'는 뜻은 날씨로 인해 12월(금)로 미 후에 치러졌다. 팔팔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 브레'와 '디텐드' 등 음악회에 참여한 락밴드들의 경렬한 음악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으로 인다의 실재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 련되었다.

하지만 기념행사 마지막으로 준비되었던 열

여섯 번째 방송제는 FBS의 편집고장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11월로 연기 되었다. 이와 관련 이번 방송제 연출을 맡은 유종식(서유림·영이 00)군은 "우선 내부사정으로 인해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 하지 만 한번 마무리된 방송제인 만큼 11월에는 좀더 완성된 방송제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스물한 번째 외대교육방송국 외대가요 제가 지난 11월(목) 늦은 5시 반에 노천 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1, 2부로 나뉘 어서 총 아홉 개 팀이 참가하였는데 우리학교 에서는 '블루데이'와 '재물'등이 출전했다. 이 번 가요제 출품곡은 모두 창작곡으로 이루어졌 는데 재즈부터 록, 힙합, 하드코어까지 그 장르 가 다양했다. 이번 가요제의 최고상인 최우수 상은 우리학교 민중가요 노래 '새물결'이 처

지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노래를 부른 이상철 (사남·영이영옥 95)군은 "한 달 반가량 준비하 였는데 고시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는 등 시간 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가요제 전날 이 '새물결'의 경기연주를 열려서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상을 탄 결정적 이유는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이군은 "첫째로 곡이 좋았고 구성과 음이 있어서 인정받아 있었다"라고 답 했다.

이번 가요제의 초대가수로선 여성 3인조 모던 록 그룹인 '코스텔라'와 '크라이닉'이었는데 마 지막의 '크라이닉'의 공연을 뒤로 대부분의 관 객이 빠져나와 초대가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 심사위원은 "크라이닉 공연이 끝나기 무섭 게 나간 관객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크라이닉 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가요제에 온 것입니 다'라며 버는 말을 하였다.

문화부

문화대선

서울, 서민어과과 라틴음악노래패 'Los Novios' 공연 열려

서민어과과 라틴음악노래패 'Los Novios'가 지 난 12일(금) 늦은 8시 반에 인문과학관 2층 대 강당에서 두 번째 정기공연회를 열었다. 이번 공 연에서는 총 열한곡 공연이 연주되었는데, 그 중 에 곡은 유명한 선반패 직접 연주하였는데, 선반패의 오랜 경험으로 훌륭한 공연을 이루어 냈다.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베사에 무조'를 비롯하 여 '스탠 바이 미', '모의악곡'과 같은 '볼 리에'를 개어 익은 곡이 다수 연주되었다. 곡 중간에 라틴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춤도 공연 되어 대강당의 열기를 북돋웠다. 이 행사에서 '카바사'라는 타악기를 연주한 윤보민(00)장은 "무대에 서기 전에는 무척 떨렸는데, 막상 무대 에 서니 괜찮아졌다"며 공연이 끝나니 후련하 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 고

2001학년도 제2학기
중간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 래-

1. 시험기간 : 2001. 10. 22(월) ~ 10. 26(금)

2.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시함.
나.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물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함.

2001. 10.

교 무 처 장

2001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2001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신청기간 : 2001. 10. 8(월) ~ 10. 19(금)

2. 신청장소 : 해당대학 교학처

3. 신청자격
가. 7학기(조기졸업 6학기)까지 제1전공에서 취득한 총점성 평점평균인,
2.50이상인 자
나. 제1전공을 8학기(조기졸업 7학기)이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
다. 복수전공 희망학과의 부원공 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한 자.

4. 제출서류
가.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학처 비치)
나.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복수전공이수 허가자 발표 : 2001년 11월중 단과대학별 공고
* 복수전공 취소기간은 3/4년 이전 소정기간에 공고예정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학년도 제2학기 강의시간표 (9~10) 참조.

2001. 10.

교 무 처 장

학생불편신고센터 신설 안내

학생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학생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설취지
가.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회 복
나. 불편사항을 한곳에서 일원화하여 접수함으로써 편의 제공
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통합 처리가 능
라. 민원에 대한 부시진 해결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제공 구현

2. 운영현황
가. 서울, 용인캠퍼스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학생불편신고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전화번호는 구내 40001(서울, 용인 동일) 임
나.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불편신고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
다. 업무처리 절차
불편신고수신(학생서비스센터) → 해당 부서에 통보 → 조치완료
· 학생서비스센터로 결과 통보 → 신고자에게 조치된 사항 확인

3. 기타사항
가. 학생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할 때는 명백한 생활상의 오류 또는 학사행정 처리과정 중에 학생본인이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인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최신 반응 수 있도록 반드시 자신 의 정밀과 소속학, 연락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0.

총 무 처 장

「2001 모의면접」 행사 안내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입사원 선발과정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제언시키고, 모의면접을 통해 새로운 채용매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2001 모의면접」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취업준비생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01년 10월 17일(수) 14:00~17:00

2. 장소 : 서울캠퍼스 대강당

3. 참가대상 : 취업준비생, 알트크로리, 엘리트크로리, 히비그로리

4. 면접분야 : 개인면접, 집단면접, 프리젠테이션면접

(10월 취업공회 및 회사 설명회 일정)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10월에 개최된 취업포럼 및 회사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열려드려오니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연번 | 일시 | 내용 | 장소 | 비고 |
|----|-------------|-----------------|-------------|-------------|
| 1 | 10(월) 14:00 | 이랜드 및 자그모아채용설명회 | 도산관 5층 세미나실 | 문예회관 |
| 2 | 10(월) 14: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6411 | |
| 3 | 10(수) 18: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체육관25층 | 10:00~17:00 |
| 4 | 10(수) 14: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6412 | |
| 5 | 10(목) 14: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체육관25층 | 10:00~17:00 |
| 6 | 10(목) 15: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6411 | |
| 7 | 10(목) 15: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6411 | |
| 8 | 10(목) 15: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6411 | |
| 9 | 10(수) 14:00 | 이랜드채용설명회 | 도산관 5층 세미나실 | 문예회관 |

* 10월중 학교 개최되는 일정은 학생취업정보센터 취업포럼 "공자취업"에 게재하되
됩니다.

2001. 10.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기행문 - 중국 자전거 기행

불가능을 넘어선 3000km의 여정

언젠가 한 외국인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라싸로 가는 장면을 보았다. 그 뒤에 어느 일본인 학생이 영하 20~30도가 되는 추운 겨울에 같은 곳을 역시 자전거로 넘어갔다는 책을 읽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밤의 실패와 두 번의 도전, 우리는 두 차례의 작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

지난해 여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가 가장 발달한 상태에서 홍콩까지의 자전거 여행을 했다. 2200km는 멀지만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길이다. 힘들었지만 끝나는 이유만으로 도전하였고, 작은 우리만의 민족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일년간 그 작은 세상이 뿌리를 내리 울레의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상해에서 3000km의 여정...

7월 7일 북경에서 모기가 잔까지 매일 밤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만나 의논을 하였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여행을 준비하였다.

드디어 D-day, 95학번 임기환, 정정환, 96학번 최나훈, 00학번 안기희, 조진태, 김진영 이 6명은 미치막으로 선배님들과 북경의 중국 친구들, 그리고 삼삼장자에 인사를 하고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기차로 30시간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중경. 중경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곳에 둘러앉은 신현의 자취를 둘러보고, 선배들의 애국심을 받아들여 다짐하였다. 중경은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모험인 만큼 상당히 많이 고된 위험했다. 우리는 정장 16일을 중경을 벗어나는데 썼다. 전체 여행기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역시 중경이었다.

하루에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목표달성이다. 올라가는

데 수 시간, 내려오는데 수십 분, 내려오면서 있어 있는 산을 보면 쓴웃음을 삼켰다.

구룡이 뚝뚝하게 피어나는 "무산"에서 모택동의 자취를 보고 구강을 즐겼다. 호구라는 곳에서 그 곳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에서 나와보지도 못한 텔레비전에 우리가 나왔다. 기행도 잠시 다음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송곳으로 지르듯 내리는 장대비를 뚫고 달렸다. 산 속에서 내리는 비라 상당히 차가웠다. 빗수 옷도 소용없이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8월달에 얼어죽을 뻔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며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전거도 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는 작은 성공에서 몸을 녹이고 쉬기로 하였다. 도저히 무서워서 다시 출발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달릴 수 밖에 없었다. 다들 미친 듯이 비포장 길을 비를 맞으며 달렸다. 창창한도 힘들었는데 아무데서나 우산 소수를 잡으려 한다. 하지만 전에 98년까리 방의 이른 기억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은 조금 더 달리기로 하였다. 그 상황에서 낙촌이는 또 화장실을 간다. 장강의 강물에 일을 본 것으로 시작해서 산 속, 계곡, 심지어 파리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도 가리지 않더니 이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일을 볼 생각을 한다. 똥소로 들어가려는데 커다란 흙 돼지가 나온다. 주인이 귀에서 휘젓기 나온다. 돼지를 잡는 순간이다. 똥소에 가면 낙촌이가 주춤한다. 낙촌이는 여행이 끝난 후 중국 화장실에 대한 질문이 되었다.

남경에 도착한 다음 날 8월 14일, 남경대학살 기념관에 가서 우리의 이름과 비속한 그들의 이름을 보았다. 그들은 3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죽었을까?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잔인성을 보며 독립운동을 하던 선배님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남경을 떠나고 얼마 후, 우리처럼 북경올림픽 유치를 위해 북경에서 상해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는 북경 과거세대 학생들을 만났다. 2명은 여자가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력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루에 150킬로 가까이 달리는 것과 별한 차이 없이 달린다. 오히려 내 짝이진 바지를 보고 자기 기행이 주겠다

고 한다. 그 힘든 일과가 끝난 밤에 말이다. 친구가 생겼다. 이틀간 밤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면서 즐겁게 달렸다. 자전거가 펑크나면 우리가 나서 때워주었다. 중국어로 안되면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만길을 같이 달렸다. 나도 그 아가씨(?)들과 함께 달렸는데, 중국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말을 난 들으며 실감했다. 그래서 중국은 올림픽 메달의 대부분이 여자가 따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상해에 도착할 무렵 우리는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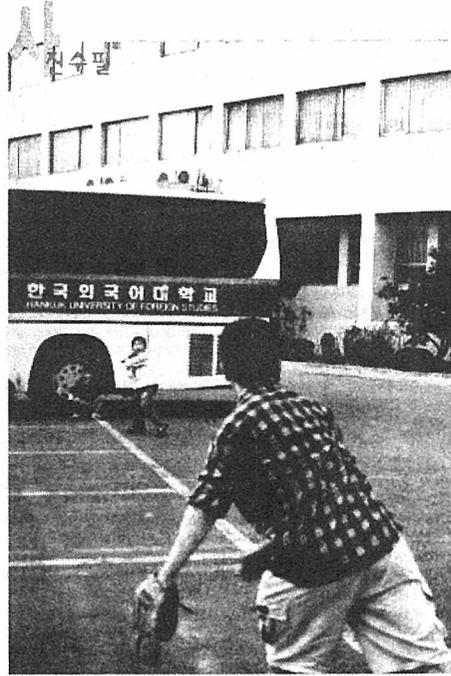
이후, 우리들만의 축제를 상해 경계에서 가졌다. 케익을 시고, 삼세인을 터뜨렸다. 각자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들 무사히 상해에 도착했다. 애들에게 고마웠고 하나같이 감사했다. 그런 행복한 밤을 보내고 우리는 상해로 돌아왔다. 맨 먼저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중경임시정부에서 가져온 태극기를 건구 선생님 동상 앞에 걸어놓고 무념을 하며 애국의 정신을 기렸다. 앞으로 다시는 힘없는 우리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그... 북대해안으로 가서 삼삼장자 미련해준 인터뷰자리에 응했다. 상해체육박물관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중국어만 아는 중국어로 대담했다. 우리학교에 교환교수로 오셨던 북대해 교수님들이 와서 맞이해 주셨고 중국인 교수님들과 오랜만에 배수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000킬로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 보나 우리가 하나되어 중국을 이해하고 보고 배우면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평생을 통해 이러한 여행을 맺어 내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며 상해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싸웠다. 여름과 두려움과 두려, 목마름, 기, 가장 힘든 것은 자기의 싸움이었다. 서로간에 다투도 많았다. 자기를 생각하며 남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같은 뜻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

혼자일 때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윌 때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여행의 모든 여정이 끝났다. 우리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하지만 먼 먼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이해할 때 우리는 중국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중국을 사랑하게 될 때 그들도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오게 될 것이다.

중경에서 상해까지 자전거여행 발표회
· 오후 - 10월 29일(월) 오후 5시 40분 후생복지관 4층 소극장
· 서울 - 10월 31일(수) 오후 5시 30분 333

임기환
(동학·중국어 95)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글에 아들녀석이 이배가 싫더니서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인제부터인가 저 녀석이 아배 옆에 누워 자더라고요. 이것이 제 아바비를 말함입니다. '부자의 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며 밝게 웃는 박원복씨(부산대·포스트휴먼에 교수) 토요일 오후, 담방 테니스장에서 열리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김천열 기자



이유진의 책 세상 - 2. 이매진, 세상으로 만든 노래

존 레넌, 팝스타덤과 싸운 팝스타

'음악이 죽은 날 The day, the music died'란 표현을 조사(字抄)로 들었던 대중음악가는 지금까지 두 사람뿐이다.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죽은 1950년대 미국 로큰롤 스타 버디 홀리(Buddy Holly)와 비틀즈(The Beatles)의 멤버였으며, 1960년 광적인 팬의 총에 쏘려진 존 레넌(John Lennon).

그 가운데서 시후에도 끊임없는 평가와 재해석의 대상이 되는 쪽을 굳이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레넌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홀리와 달리 레넌은 그가 몸담았던 시대의 아이콘이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이른바 '복음주의'의 르네상스였던 1960년대에서 레넌이란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비틀즈를 생각한다면 '별 다섯 개 급'이라 해도 무리 없다.

리브, 리브 미 두를 외치던 틈에이지 스타에서 '유 세이 유 윈트 러 레볼루션을 줄 조리는 '어티스트'로의 전이는 그 시대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증거 그 자체였다.

이렇게 내면의 스펙트럼이 넓었던 사람의 삶을 글로써 드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무도 레넌을 놀가할 수 없다'식의 맹목적 예찬 아닐까보다나 불림 스펙트럼 같은 외곡 자료 해석으로 일관하는 연대 표시 내어란 허술한 글쓰기가 나오기 십상이다. 이러한 글에 쉽게 질려버린 독자들은 늘 대안을 바라고 미련했다. 가령, 치밀한 문헌 조사가 바탕이 되고 한편으로는 일관된 문체 의식과 논리에 따른 해석이 스며들어 있는 편지 같은.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레넌의 삶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한 재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것에 대한 의문을 글쓰기에 녹여보는 작업은 독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현준의 레넌 편지. '이매진, 세상으로 만든 노래' (세경, 1993)는 이러한 의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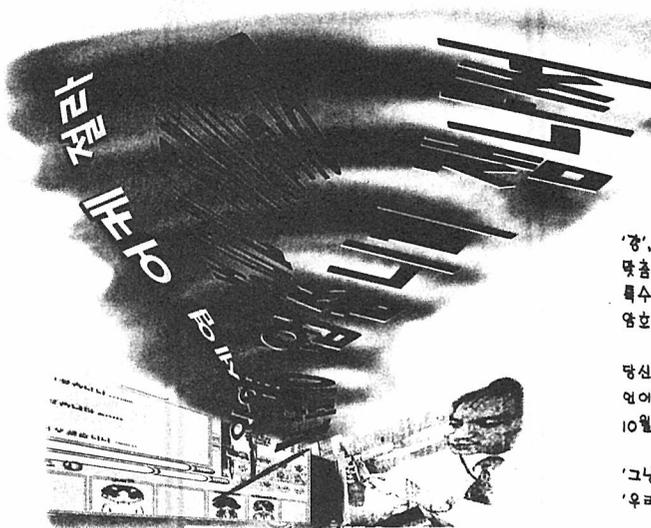
충분점으로 레넌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

당시 영국 청년 집단의 한 유형으로서 답답하고 비투박하기까지 한 노동계급의 삶을 특색적으로 송두리째 바꿔보려는 스타 지망생 존의 모습에 대한 지은이의 식견은 책이 나왔던 1993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기도 했다. '대중음악의 사회학적 해석'이라는 다소 거창하고 딱딱한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말이다.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에 이르는 동안 레넌을 팝 스타이면서도 팝 스타덤과 싸운 존재로 규정하며,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대해 극한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싸웠다'는 '이유로 레넌의 40년 삶을 위해한 혁명가의 삶으로 평가하는 이 책에서, 편지가 늘 안고 있는 지의적 해석의 위함을 좀처럼 잊보기가 어렵다는 느낌은 비단 나만의 것일까.

이유진
(서양·스칸디나비아어 94)

혹시 당신도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 '리하이!', '안나세영', '범여주세!', '2 YO'
맞춤법은 아예 무시,
특수문자는 극력불명
양호언지 외계어인지 해석 안 되

당신이 사용하는 채팅언어가
언어파괴의 주범이라는 걸 아십니까?
10월에는 한글날이 있습니다

'그냥',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보내주세요', '사랑해', '어빠요'
'우리말 바로쓰기' 한 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